

죽음

김문준(휴머니티칼리지 교수)

강의 순서

1.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2. 죽음에 대하여
3. 죽음의 가치
4. 복된 죽음
5. 죽음은 사회적 문제
6. 존엄한 죽음(존엄사, 안락사)
7. 미래의 죽음

1.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죽음: 죽는 과정, 죽음, 그리고 주검 처리
 - 보다 인간다운 행복한 **삶**의 증진을 위하여
 - 개인: **알찬 삶**을 위한 지혜의 문
 - 사회: 공존 번영의 사회적 기반
-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요청

인간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이해



1. Well Living

2. 인간 생명 존엄성(인권)

2. 죽음에 대하여

□ 죽고 싶지 않다. → 나는 안 죽는다.

□ 우디 앨런은 말했다.

‘나는 작품을 통해서 불멸을 얻기는 싫다.

나는 죽지 않음으로써 불멸을 얻고 싶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기는 싫다.

나는 내 아파트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죽음이 싫은 이유

생

죽음

사

두려움

상실

후회

사후세계?

죽음에 대한 인식

1. 죽으면 끝이다.

-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주의 먼지, 흙으로 돌아간다.

- 망각의 강; 감각, 인식, 생각의 중지,

2. 영혼이 남는다

- 자기인식(기억, 정신) 상태의 지속,

- 전생(前生)의 연장

사후세계, 나

□사후세계가 없다면?

‘나’ 라는 존재가 없어진다

□사후세계가 있다면?

‘나’ 는 영원히 계속된다.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두려움

- 1) **환생**(還生) : 생(生)의 반복, 윤회(輪廻)
- 2) **영생**(永生), 구원(救援):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냄.
 -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극락이나 나락(카르마)에 간다. 등등
 - **천국**: 선행을 하여 가는,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 **지옥**: 죄업을 짓고 가는, 극도로 괴로운 세계.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 기독교 지옥/ 불교 지옥의 차이: **영원과 일시**

3. 죽음은 남의 일

□ 키케로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1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기원전 44년)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신도 기원전 43년에 죽었다

□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

‘세상의 하고 많은 놀랄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주변에서 남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 임종의 자리, 미국 작가 윌리엄 사로얀
‘누구나 죽어야 하지만
나는 늘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믿었다.’

□ 에드워드 영
‘누구나 사람의 생명이 유한한 것을 알지만
누구나 **자신을 빼놓고** 생각한다’

□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가?

랜디 포시(Randy Pausch) 교수의 마지막 강의

고통과 죽음의 위대한 가치

□ 고통과 죽음은 사람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문명을 일으키는 바탕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

-신의 삶, 신의 세계는 언제나 영원불변

신이 부러워 하는 '죽음'

□ 불멸은 인간의 바람

불로장생, 전지전능 불멸의 신이 되고 싶다.

□ 그러나 신은 인간을 부러워한다.

영원한 젊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은
슬픔도 괴로움도 없애지만, 즐거움도 기쁨도 없앤다

죽음이 없는 신의 영원한 하루하루

--즐거움이 없는 영원 -대재앙

□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 ~~~, ‘자아 인식’

□ 인간의 위대한 발견: 지동설, 진화론(논쟁중),
그리고 죽음(유한한 자아)

□ 죽음을 통해 자아와 삶을 이해(철학의 출발)
→ 인생관, 가치, 꿈, 희망, 사랑 ~~~

□ 문제는 고통과 죽음은 나의 일
→ 나의 일로 인정 필요

죽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운다

▣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태도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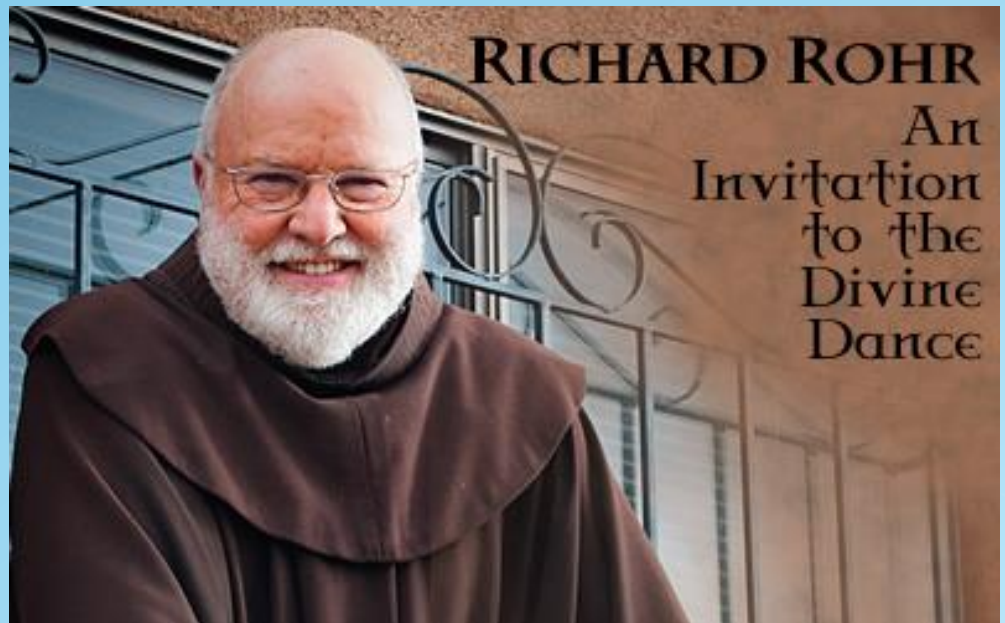
현실과 삶에 대한 **허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는
대공정의 인생태도

죽음은 현재 삶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 죽음을 맞는 그날,
- 내 인생은 살만했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이 했다고 여길 수 있다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 자기 삶의 의미있는 일²⁰어반
무엇보다 자신이 자랑스럽고 보람있었던 일
-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희망, 사랑, 감사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 잘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잘 산다는 것.

죽음이 알려준 삶의 진실 10가지

- 리처드 로어(Richard Rohr) 신부
- 잠시 죽음을 경험한 이들의 삶이 변화 10가지



1. 무섭도록 현재에 **집중**한다
2. 깊은 **자신감**을 갖는다
3. 물질 **소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
4. **정신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5.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6. **관용**하게 된다
7.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
8. **고독**과 **고요**를 즐긴다
9. **봉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10. 항상 **감사**한다

4. 복된 죽음

보람, 감사, 사랑으로 가득찬 인생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잠자는 듯 죽어야 한다.

미국 피아니스트, 유비 블레이크 100세 생일.
‘의사들은 자꾸 나한테 어떻게 그리 오래 사느냐고 묻지.
그럼 내가 말하지.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진작 건강에 신경을 썼을 텐데 말이오,”

그는 닷새 후에 죽었다.

5. 죽음은 사회적 문제이다

- 죽음은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문제.
- 죽음은 가장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관련된 사회적인
일.

죽음의 종류, 세가지

생물학적 죽음

몸의 죽음 :

심장 마비; 심장 박동이 멈춘다.

뇌사; 뇌 작용이 멈춘다.

심리적 죽음

마음의 죽음, 정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뜨거웠던 사랑이나 평생의 노력이 수포가 되면...

사랑도 감사도 기쁨도 없다.

사회적 죽음:

- 사회적으로 그 존재가 지워져 있다.
- 사회로 부터 **고립(무시)**되어 있다는 뜻.
- 과도한 업무+실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개인적인 죽음'로 환원되는 악순환
- 가난, 방치, 대형사고**로 인한 죽음

그리고 **잊혀짐**(망각)

노예상태(올랜도 패터슨)

개인의 독립/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

노예상태란 자유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다.

노예는 주인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사회관계가 없다.

주인이 노예에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

미국의 무국적 입양인, 중국의 무호적인,
무비자 취업자

현대사회에서

죽음

□ 현대사회에서 죽음

-죽음의 회피 : 젊음의 연장, 죽음을 타자화
늙고 병들어 죽을 준비를 안한다. 죽음 경시

-죽음의 세속화

과거: 생자(生者)는 사자(死者)를 공경

근대의 죽음: 자본에 종속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 처리

공동묘지, 화장장(일제강점기): 사자의 등급

죽음, 죽은 자, 죽은 자의 공간: 거부의 대상

생명 연장: 장수의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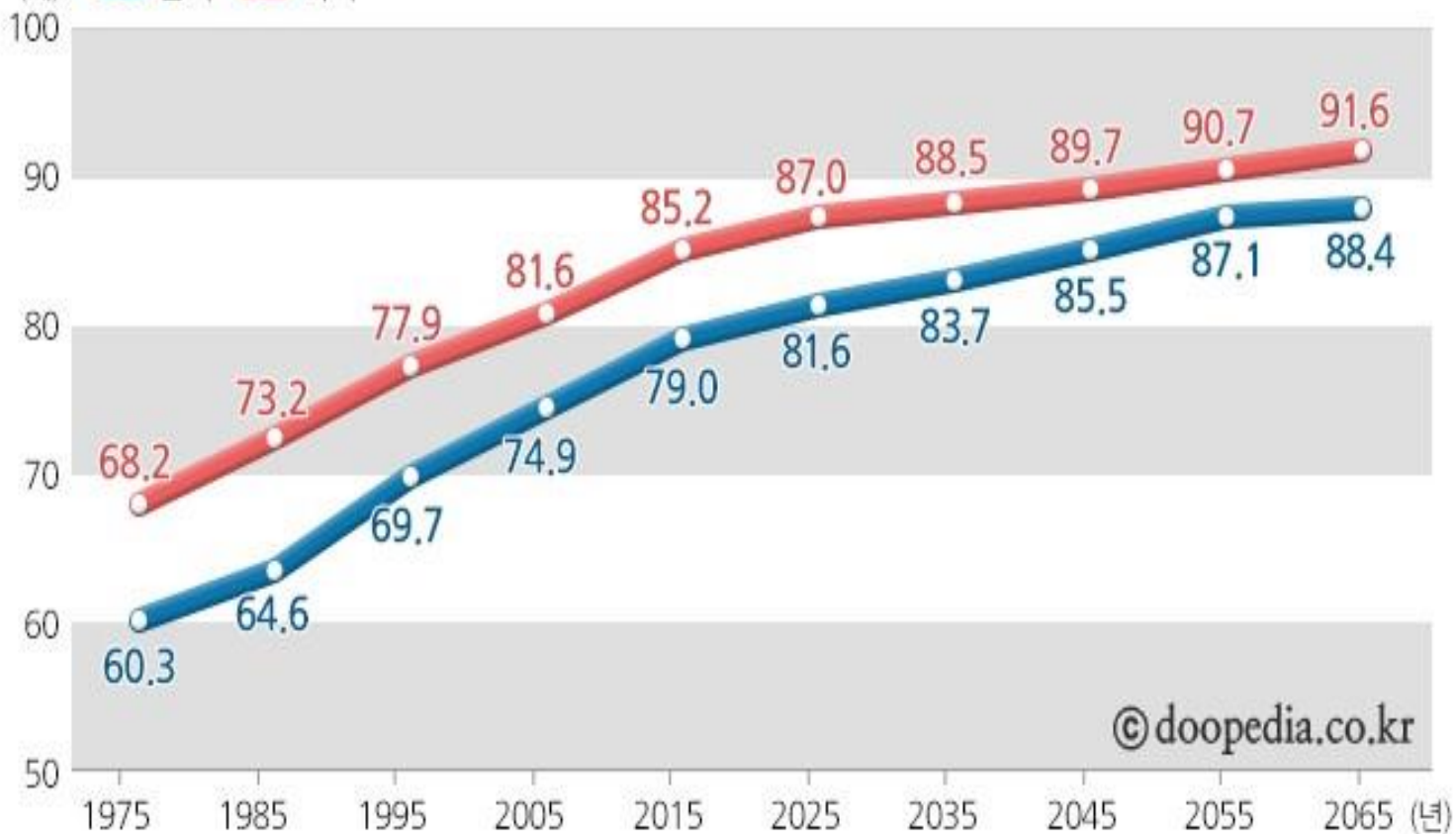
- 2015년 현재 한국 평균수명 82세: 급격한 증가
(남성 78세, 여성 85세)
- 2030년 한국여성 기대수명 90세
- 2050년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예상

‘노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통제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연장의 가능성은 사실상 무한해 보인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약학 교수 윌리엄 리젤슨)

“아마 30년 안에 우리는 수명을 결정하는
주요 유전자들을 알게 될 것이고,
현재의 최대 수명인 120년을
2배, 3배, 심지어 4배로 늘리게 될 것이다.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400년 뒤에도 살아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하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분자생물학자 마이클 야즈빈스키)

평균수명

(세) ● 남자 ● 여자



© doopedia.co.kr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한국 사회의 고령화

- 2015년, 한국 총인구 5062만 명.
2030년까지, 5216만 명으로 증가
이후 감소, 2040년 5109만 명
- 전체 인구 감소/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가
2015년 13.1%
2030년 24.3%, 2040년 32.3%
2040년 한국 인구 절반이 50대 이상

□ 그러나 노인은 거의 대부분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많이 아프고

외롭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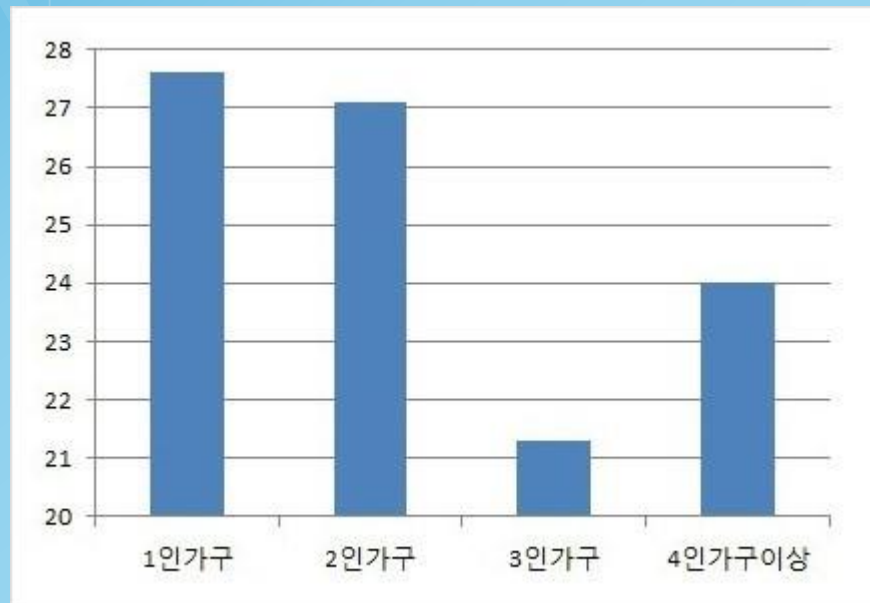
가난하다.

고독한 인생, 고독한 노년

우리나라 가구 구성비율(2015년 통계청)

1인가구 27.6%, 2인가구 27.1%, 3인가구 21.3%, 4인가구 이상 24%

5년 이내 1인가구 비율 30% 이상



한국 - 노인 자살 1위

□ 삶이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몸이 늙고 병들어 기능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면.....

그런 시점이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있었
으면 좋겠다.

죽음은 사회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 개인이 죽어가는 과정: **가난, 병고, 고독**
: 은퇴, 노화, 병, 쓸쓸한 죽음
- 많은 노인들이 가난하고, 아프고, 쓸쓸한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는다.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로 **가족 해체**,
선진국처럼 가족 대체할 사회보장 조직 부족
노후 생활비, 병원비 등 노년과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여건 부족.

-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사회와 국가는 죽음에 어떻게 대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지
- 개인과 국가는 죽음에 대해
차분한 준비와 대비를 해 나가야.....

6. 존엄한 죽음(존엄사/안락사)

□ “**품위있는 죽음** 원해”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

□ 국민 10명 중 9명(87.5%) '존엄사' 찬성.

□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 중단, 자연스러운 죽음

□ 자신의 병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품위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질병 말기 상황을 환자가 알아야 한다: 91.8%.

인간은 자신의 생명(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개인의 자유/권리?)

-타인 (가족, 의료인, 제3자)가 결정할 수 있는가?

□ 개개인의 ‘사전 의사 결정제도’

연명치료 중단 요청

한국인 92.8% 필요하다고 응답.

□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 시기:

질병이 생겼을 때(33.3%),

말기 진단 시(31.1%),

건강할 때(26.4%)

존엄사법 [연명의료 결정법]

- 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 2009년 대법원 판결

김 할머니 연명치료 중단(세브라스병원)

- 2016년 '웰다잉법' 의결(1월 8일, 제19대 국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 2018년 2월 존엄사법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 존엄사(안락사) 표기

'death with dignity',

'dying with dignity',

'euthanasia'

'Well-dying'

안락사 허용 국가

- 연명치료 중지 요청이 아니라 **안락사 허용**
 - 환자 요청으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법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 벨기에 2015년 2천 건 이상
- 프랑스, 캐나다 웰다잉법(2016년) 의결
- 영국, 미국 등 안락사법 검토

□ 캐나다 : 의사 도널드 로우의 호소

- 2003년 사스(SARS) 위기 때 TV 출연 유명인
- 뇌암 투병생활, **조력 자살** 허용 호소(동영상).
- 인간답게 죽을 권리 허용 요청.

□ “내 몸에서 24시간만 살아보라”

“나는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닌채 살고 싶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죽고 싶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이다.”

“움직일 힘이 없는데, 더 나쁜 것은 아직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 고통 없는 죽음,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

□ 캐나다 존엄사 협회의 슬로건

"당신의 삶, 당신의 선택"

(It's your life. It's your choice).

□ 미국: 말기암 환자 29세 브리트니 메이나드

- 2014년, 유튜브 안락사 요청 동영상
- 편안하게 죽을 권리 주장
-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리건주로 이사
- 스스로 죽을 날자 선택/ 부모, 남편,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

□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국가(종교)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관여할 권리가 있는가?

□ 스위스의 안락사

□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법안의 공통점

개인의 행복 추구 권리 인정

□ 향후 안락사 허용 준비

- 여러 단계의 사회적 안전 장치 필요
- 인간성과 생명이 경시되지 않는 환경 조성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

▣ 다음 중에서 안락사를 허용해도 될 사람?

1. 스크루우지(인색한 욕심장이)
2. 악덕 고리대금업자(파렴치한 이기주의자)
3. 극빈자(병원비는 커녕 생활비도 없는 사람)
4. 중증 시한부 환자(고통 속에서 지내는 말기 환자)

지혜로운 삶과 죽음 준비

월 다잉=월 비잉

미래의 죽음

무한한 장수 시대

□ 무한한 의료시장

□ 무한한 복지사회

□ 불로불사 영생: 몸 바꾸기, 복제인간, 사이보그
어디까지 '나'인가?

▣ 4차산업혁명(미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간 사회를 바꿔줄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트렌드: 데이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빅 데이터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면 인공지능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온갖 것에 센서를 붙이면 사물인터넷

HOMO DEUS

- 유발 하라리의 두 번째 문명비평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열광
유발 하라리(Yubal Harari): ‘데이터교’ 명명
- HOMO DEUS : A Brief History of Tomorrow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김영사

□ 호모 테우스 HOMO DEUS

호모HOMO'는 '사람 속을 뜻하는 학명'

테우스DEUS'는 '신GOD'이라는 뜻

즉, '신이 된 인간'

□ 인류를 괴롭히던 기아, 역병, 전쟁을 진압하고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불멸, 행복, 신성’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 이제 ‘그래서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지,
어디까지 타협하고 나아갈 것인지’
종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 사람들이 “일상적인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자기 뇌 회로를 조작하고 공부나 운동에 집중할 것”
- 그런 조작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면 고객이 ‘자유의지’로 구매한 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제품이다.
- 인간의 의지는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과정들 때문이고, 특정한 유전자 구성 때문이며, 그런 유전자 구성은 우연한 돌연변이와 오래된 진화적 압력의 합작’이다.
-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

□ 마음과 의식

- 마음 상태 조작

□ 생명공학 발전

- -수명을 다한 인공장기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 -맞춤 의료로 질병을 치료하면서,
- -자율자동차로 자동차 사고위험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 -태양광 에너지로 무한 에너지에 접근하며,
- -농업발전으로 기근이 사라지는 이 예측 가능한 미래사회

'죽음과의 전쟁'

□ 500살 사는 프로젝트 시작한 구글

- 죽음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전쟁
-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
- 가장 확실한 이윤이 예상되는 미래산업

□ 구글 자회사 '칼리코'

- 500살까지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구글벤처스' 설립

□ **의학포럼 의학자 1,000여명 모임**

인간의 수명연장 가능성 개척, 2018. 8.18.

Tokyo Akasaka InterCity Conference Center

미국의 윌리엄 H. 앤드류스 박사
생명공학분야, 노화치료 연구

□ **"나는 영원히 살 계획이다"**

**신체노화를 막을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 **염색체 말단부위, 텔로미어(Telomere) 연장**

□ 미래사회와 인간의 삶?

1.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고,
생명은 실제로 데이터 처리과정에 불과할까?
2. 지능과 의식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3.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사회, 정치,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 사회의 죽음 양상

장수 요절[壽夭]은 운명 ⇒ 자의지 선택

- 빈부 격차로 인한 ‘삶의 기간’, ‘노후 생활’의 차별화
- 지속적인 생명 연장으로 ‘개인이 죽음 선택’ 증가
: 존엄사/안락사
- ‘가족 붕괴’와 ‘고독사’ 증가
- 인공지능로봇의 인간 대체 가능성 증가
- 국가의 ‘죽음 관리’ 필요성 증가

미래의 죽음관련 문제

- 나란 본재? 삶의 욕망?
- 존엄사 – 안락사(주체: 나/가족/국가?)
- 부부/가족의 의미(100년의 동거?)